

##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시골지역 거주 장애인의 버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

유두한\*, 박현경\*\*, 전병진\*\*

\*전북대학병원 작업치료실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관한 경험을 이해하고, 버스의 이용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대한 행동과 언어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연구 중 현상학적 접근법과 해석학적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상학적 방법과 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기술과 해석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 지역사회에서 보행 가능한 장애인은 버스 이용에 대한 자신감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버스 탑승과 하차의 긴박한 승부의 순간에 버스 안에서 좌석을 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긴장을 놓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버스 이용 시 좌석에 앉기와 이동 시에 환자의 부담감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론 :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있어 자신감이 독립적인 이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항상 넘어짐에 대한 경계를 하고 여러 심리적 어려움과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극복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대중교통, 버스 이용, 보행 장애인, 이동, 질적 연구

### 1. 서론

최근의 삶의 양식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질적인 삶의 향유가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다양한 여가와 문화 활동의 참여가 개인의 삶에 미치

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삶의 질이란 “삶의 만족, 자아 존중감, 건강상태와 기능 및 사회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로 삶에 대하여 느끼는 안녕감, 복지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하고 있다(George & Bearon, 1980).

교신저자 : 전병진(nomadot@konyang.ac.kr)

|| 접수일: 2011. 05. 20 || 심사일: 2011. 06. 08

|| 게재승인일: 2011. 06. 14

여기서 삶의 질이란 단순히 외형적인 생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삶의 질은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참정권의 확대를 포함하며, 사회적으로는 일에 대한 만족도, 가치 합의와 사회적 통합,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예술과 교육의 발전, 문화향유권의 확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Tzonickaki & Kleftaras, 2002).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인간적 생활양식의 기본이 되는 접근성과 이동 및 교통권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참여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Brachtesende, 2003). 또한 장애인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이동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주요 요소가 된다.

기능적 이동에는 침상이동을 비롯해 휠체어 이동 및 지역 사회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을 포함한다. 이동은 자신의 역할 과제 및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Deborah, Carole, Michelle, & Susan, 2006). 지역 사회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회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좌절감을 안겨줄 뿐이다.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갖춰진 상태에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이윤형, 2006).

장애인은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있는 계층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접근로나 이용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사회장애 및 사회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불평등한 제도와 같은 비물리적 사회장애로 사회참여와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보인다. 실제로 67.3%의 장애인들은 경제력과 이동권을 문화생활

과 가정 밀접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장재완, 2002). 또한 공공 운송수단 체계를 불안전하고 불편하고 접근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접근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탑승의 어려움 등은 장애인의 교통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황호, 2010).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보건복지부, 2006)은 차별금지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동과 접근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이 제정된 후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향상된 측면은 있지만 주로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접근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원, 2008).

장애인 이동에 관한 통행실태 조사의 한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주요 이동지가 없음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직장과 의료복지시설 및 여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이동 수단으로는 지하철과 전철이 가장 많았고,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와 일반 시내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남두희와 임관수, 2007). 시내버스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된 노선을 통해 일정 시간동안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교통수단이다.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과 요령을 가지고 있는 걸까?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회피하는 이런 경험의 현장 속에서 필수적으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일까? 장애인의 일상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의 연장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그 전략과 심리적 어려움 등을 이해하기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위해 치료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가로 이동과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를 알고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이동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이다(Deborah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사회참여의 근간이 되는 대중교통 이동에 관한 연구로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전략을 현장의 목소리로 체험하고 살펴보고자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관한 경험을 이해하고, 버스의 이용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은 수량화하기 곤란한 인간의 심층에 있는 의식이나 행위의 동기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에 적합하다(조홍식, 정선옥, 김진숙과 권지성, 2009).

현상학에서 다루는 현상이란 반드시 주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관 속에서 지각되는 체험을 말한다(최경호, 박인철, 1986). 즉, 생활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주관이 지니는 체험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 즉 인터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경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의식의 내용과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며 경험의 다양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Giorgi(1970)는 구조의 가치 중의 하나는 현상적 수준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정확한 구조, 즉 실재(reality)에 있다고 말하면서 현상학적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의 동일한 현상이 오랫동안 인식될 때, 그리고 반복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확인한 후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는 드러나게 된다.

참여관찰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현장의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한 방법이다(Hammersley & Atkinson, 1995). 정보 기록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공식적 행동과 언어소통의 특징들을 약식메모와 기술적 요약으로 현장성을 반영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산출된 의미해석과 비교하여 재확인하였다. 특히, 버스 이용하기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현장성을 대변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질적 연구방법 중 해석학적 현상학은 인간의 체험에 대한 표출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현상학이 '괄호치기'를 통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주관적인 체험에 대한 기술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해석학에서는 체험에 대한 기술의 또 다른 기술로 또 다른 의미부여를 하는 해석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신경립,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에 관한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버스 이용에 대한 경험과 전략을 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였다(표 1).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기술하여 버스 이용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글쓰기를 통해 나타냈다.

표 1. 연구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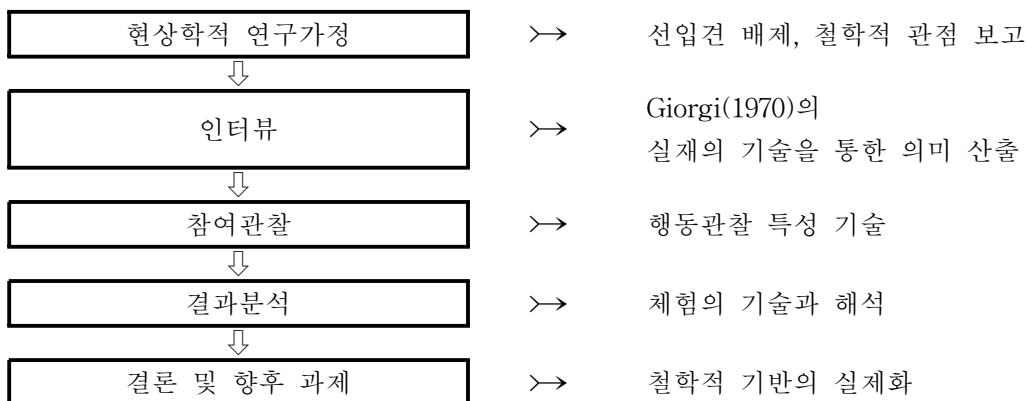


표 2. 인터뷰와 참여관찰

인터뷰	⇒	① 연구자는 모든 기술을 완전히 읽는다. ② 각 기술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뽑아낸다. ③ 진술을 의미로 형성하며 의미는 주제로 모아진다. ④ 주제를 하나의 내러티브 기술로 통합한다.
참여관찰	⇒	① 단계적 진행에 따른 행동 관찰과 기술적 요약 ② 버스좌석 확인과 상호작용 확인 ③ 인터뷰 주제에 적합한 요소 추출하여 비교 확인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면접에 동의하여 자신의 체험을 진솔하게 구술하고, 연구자를 신뢰하여 연구에 협조하기로 한 1명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4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를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발병한지 약 10년이 지났다. 현재 가정에서 외래로 재활 치료를 위해 주 2회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8년 동안 이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이동을 위해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어머니와 군단위의 시골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소득원이 되는 직업이 없고 의료보호를 통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주변인에게 무료를 달래기 위해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 자료수집

현상학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시에 인간 의식은 경험의 서술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 그 자체가 서술되어야 한다(이남인, 2005). 본 연구는 참여자의 보다 신뢰성 있고 풍부한 서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에 연구 참여자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차를 함께 마시면서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박해준과 이승연, 2009).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동년 5월까지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조용한 검사실에서 인터뷰와 지방에서 운용 중인 버스 안에서 관찰자로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1회 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초기에는 간단한 라포형성을 위한 안부 인사로 시작하여 버스를 이용에 대한 경험과 성공적인 버스 이용 전략에 관해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녹음하였고, 녹음한 내용은 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관찰자로서 참여관찰은 15분씩 2회를 수행하였으며, 체계적인 관찰방법으로 체크리스트 형식의 관찰 목록이 현장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드러나는지에 관해 기술적 요약과 현장스케치를 이용하여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 3. 자료 분석과 글쓰기

본 연구는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관한 경험을 이해하고, 버스 이용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어려움의 극복과정을 탐색하기 위해서 버스 이용을 단계적 시점으로 나누어 체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고, 단계별 긍정적/부정적 요소로 구조를 나누어 연구 참여자의 버스 이용의 경험과 전략에 대한 맥락적 의미를 구성하였다.

인터뷰와 참여관찰에 대한 문헌 검색과 질적 연구방법 수행에 대한 반복훈련으로 글쓰기를

도왔다(표 2).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모든 기술을 녹음하고 바로 필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읽기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반복적 읽기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뽑아내고 결국 주제로 모아지게 된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한 기술을 내러티브 형식을 통해 통합하였다. 참여관찰은 단계적 진행에 따른 행동 관찰과 기술적 요약하였다. 직접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뷰 주제에 적합한 요소를 추출하여 비교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기호화하여 전반적인 구조를 형성하였고, 글쓰기 양식은 글을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고, 다시 연구자가 경험의 의미를 살려 재해석하였다.

#### 4.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적 이슈

본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된 연구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이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인터뷰 자료와 참여관찰 자료, 치료 경과일지, 연구 참여자의 재검토 자료 등을 비교하여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윤리적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자료수집이 시작되기 이전에 잠재적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본인의 직접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를 신뢰하고 연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유지하고,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도중 언제든지 철회가능 함을 알렸다. 인터뷰의 경우 연구자는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지닌 관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드러난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관한 경험과 성공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 시점에 대한 의미의 분류로 결과를 나열하였다. 또한 단계적 시점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요소로 나누어 전체적인 맥락적 의미를 구성하였다.

#### 1. 버스 이용에 대한 도전; 자신감 대 두려움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인자 나는 나 혼자 자신이 있었는데, 그래도 인제 보호자는 불안할거 아니에요. 저 모르게 뒤를 밟았나봐요. 혹시 자빠지고 뭐고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저 모르게 몇일 동안만 몇일 동안을 자 OO가 저 정도면 혼자 잘도 하겠다. 몇 일 동안을 저 모르게 저걸 했나봐요. 미행을 했나봐요, 한마디로. (웃음)”

우선, 참여자는 버스 이용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약 1시간 거리를 걸어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 도심지역까지 이동했다.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참여자의 안전한 버스 이용에 가족들은 안심했고, 그 후로 연구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버스를 혼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버스 이용에 대한 자신감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현장 관찰 노트에서도 버스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걱정하는 모습 없이, 버스를 능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버스 탑승과 하차의 긴박한 순간; 요령과 불안

“계단 올라갈 때 제일 처음에는 다리가 아픈 다리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고श्य요. 계단,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끌기 때문에 처음엔 그것이, 요령이 생기면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어요.”

“지금은 여기서서 기본요금이 시내 기본요금이 천원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서 내면 바로 손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나가 인제 시골에서 타고 다니는

조것은 그로컬 하덜 못해요. 기본요금이 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면은 미리 인자 인자 기사 기사한테 미리 말을 하고 차표를 넣어요. 그러면은 말 안코 어찌고 하면 모르는 상태면 그냥 가분단 말이에요 내가 동전 넣으면서 잡기 전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옅폭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질 염려가 많아요.”

“좀 바쁘고 차가 좀 늦고 바쁘고 그럴 때는 좀 차가, 차가 좀 움직일만 해도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움찔움찔 해요. 그 옆에 잡으니까 잡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근데 거의 처음에는 인자 거의 나를 아니까, 인자 기사님들이 인자 조금 늦게 출발해요. 바쁠 때는 빨리 출발하는데 좀 안 바쁘면 좀 늦게 나 자리 앉을 때까지.”

“처음에 탈 때 딱 탈 때 옆에 옆을 보가지고 잡을 때부터 잡을 때부터 보고 차를 타거든요. 옆에옆에 차 문 그 잡을 때에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걸 잡고 차를 타거든요.”

“응 그런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어. 어째서 그러냐면 내가 의자에 앉은 좌석에서 벨이 없으면 그 앞뒤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되요. 내가 언어를 못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언어를 할 줄 알면 말을 할 줄 알면 앞뒤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눌러 주니깐요, 그것은 불편한 점이 없어요.”

참여자는 제한된 신체 사용으로 버스 탑승과 하차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탑승과 하차 시에 계단이 있는 버스 이용에서 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승차 후에 버스 요금을 내고 바로 좌석으로 이동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에서 가급적 빨리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으며 빠르게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 주로 차표를 이용하였으며 현금 이용 시에는 거스름돈을 생각하지 않고 지폐 한 장을 손에 쥐고 탑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버스 요금을 낼 때 버스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버스 안에서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고 버스에 올라타서 빠른 시간 안에 좌

석으로 이동하여 안정감을 찾았다. 또한 하차 시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경우 직접 하차 벨을 눌렀지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 주변사람에게 하차 벨을 눌러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 관찰 노트에서도 계단이 있는 버스 이용 시에 손으로 기둥을 잡고 천천히 어렵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버스 탑승 시에 현금 혹은 차표를 이용해서 단 시간에 요금을 계산하고 이동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 기사는 참여자를 알아보고 백미러를 통해 참여자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버스를 이동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하차 시에는 벨을 눌러달라고 부탁하거나 직접 누르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 3. 버스 안에서 좌석 이용 전략; 양보와 기다림과 준비부족

“처음 버스를 탈 때 힘들고 만약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 시골은 시골이나 여기나 다 마찬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 노인일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서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젤로 그것이.”

“밖에서 보가지고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차를 타요. 다음차를 20~30분 더 기다려도 다음차를 타요.”

“그럴 때는 의자 의자 앉는데 올라온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그것보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팔, 팔 아니 의자 앉으면 옆에 팔걸이. 잉, 그 좀 의자 딱 허리하고 엉덩이 궁뎅이를 딱 부착하고, 발을 어깨 너비를 벌러가지고 팔로 딱 잡으면 좀 괜찮아요.”

“자리는 앞쪽이나 뒤쪽이나 상관없어요. 내렸다 올라갔다하는 뒤쪽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발이 걸려서 자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미리 방어를 하는 것이지요.”

참여자의 주거지가 비교적 한적한 시골에 위치해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좌석이 있을 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심지에서 버스를 이동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아 좌석이 없을 경우 다음 버스를 이용하거나 좌석에 기대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음차를 기다리거나 좌석에 몸을 기대어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버스 탑승 시에 자신의 장애에 대해 기사에게 언급하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현장 관찰노트에서도 버스를 확인하며 버스안의 탑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탑승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버스 안에서 좌석이 있을 경우 가급적 자리에 앉고, 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좌석에 엉덩이를 기대고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턱이 높은 맨 뒤 좌석은 이용하지 않았다.

#### 4. 버스 이용 시 환자의 심리적 어려움 ; 양해와 이해부족

“처음에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람을 미리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좀 나를 좀 젊은 친구들은 많이 양보를 해줘요. 아무래도 기대고 가는 거 보다 앉아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좌석이 없을 경우에도 그냥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그 붙여 의자에 붙여가지고 글구 타요. 우산 놓고 땅바닥에 우산 놓아버리고, 인자 나만 일단 우산 들췄는데고 나만 인자 안 자빠지게끔 안 넘어지게끔 저것을 하는 것이지요.”

참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 버스로 인해 항상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자리 양보를 많이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버스에서 좌석에 앉을 때에도 몸이 불편한 노인이 많을 때에는 좌석에 앉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20~30분 기다리고 다음차를 이용하거나 좌석에 기대어 안 넘어지도록 자신의 몸을 우선 생각하여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현장 관찰노트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상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에 있어 어려운 점들을 직접 타인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함으로써 상호이해적 입장을 만들어 나갔다. 따라서 심리적으로도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점차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 5.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 균형감과 갑작스런 상황

“빨리 갈 때도 계속 갈 때 출발해서 가는데는 상관 없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상관 없이 있는데, 출발할 때 쉴 때 그때가 움푹 기울고 하니까. 그때가 젤루 힘들죠. 다른 때는 힘이 안 드는데.”

“(웃음)나 자신도 모르게 의자나 뭐 같은 그 옆에 있는 물건을 보듬는다시피 인자 잡죠. 일단 안 자빠져야 하니깐. 자빠지면, 자빠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쳐, 다치지. 일단 잡고 안 자빠져야지, 그 옆에 사람이라도 만약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도 잡고 인자 사람한테 그 상대방 선생님한테 선생님 허리를 잡았든가 다리를 잡았든가 그때 순간적으로 잡고 그 순간적으로 안정이 되면 사과를 하지. 죄송하게 되었다고 미안하게 되었다고. 고맙다고도하고, 죄송하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대방이 내 몸이 안 불편했을 경우에는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을 아니깐 내 몸이 이래서 그랬다 말하면 상대방이 많이 이해해줘요.”

참여자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돌발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며 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나 버스가 갑자기 이동하거나 정지를 할 때에는 자신의 몸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손으로 잡았다. 혹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자신의 장애를 말하면서 양해를 구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몸이 불편한 것을 알게 되면 이해를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 관찰노트에서는 돌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단계적 시점에 대하여 전체를 요약하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나누어진다. 이를 버스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맥락적 의미를 구성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단계적 시점에 따른 맥락적 의미 요약

단계	단계별 내용	긍정적	부정적	인터뷰	현장관찰노트
1단계	버스이용 도전	자신감	두려움	대답 9	요약 7
2단계	버스탑승과 하차	요령	불안	대답 10, 11, 12, 19	요약 3, 4, 5, 6
3단계	좌석이용	양보, 기다림	준비 부족	대답 8, 15, 35	요약 8, 9
4단계	심리적 어려움	양해	이해의 부족	대답 2, 6, 14, 17, 18	요약 1, 2, 10
5단계	돌발상황 대처	균형감	갑작스런 상황	대답 20, 21, 27	-

#### IV. 고찰

현상학적 연구는 특정한 일생생활세계에 대한 보여주기 방식의 연구이기도 하다. 특정한 생활세계란 습관처럼 주어지는 상황이 아닌 특정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생활세계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살펴볼 수 있다(곽영순, 2009). 그리고 생활 현실을 연구자의 시각이 아닌 참여자의 의식과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성희, 2004).

장애인의 경우에 이동과 관련된 삶의 질적 문제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당사자의 관점에서 의식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정책연구에 반영될 수 있다. 주로 기존 연구가 대부분 전문가들에 의한 외부자적 시각에 의해 진행되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할 정도로 현실감 있는 진행을 보이지 못했고,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과 관련한 이동약자의 문제는 인권에 근거하여 교통서비스의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황호,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책적인 배려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세부실천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불편이 해소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양적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반해 질적 연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내부적 관점을 이해하고 장애인들의 삶을 보다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현상학적인 연구와 해석학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이동(community mobility)에 있어 독립적인 역할의 변화에 자신감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랜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하며 외래로 혼자 병원을 다니고자 하는 욕구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제한과 환경의 제한으로 독립성에 방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참여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돌발 상황에 대한 예견 등으로 집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장애가 단순히 신체적 제한과 환경의 제한으로 독립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감이 장애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내적 중요 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참여자가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지만 참여자보다 기능 상태가 더 좋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이동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보호자에 의지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적응한다는 것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절되는 것이다(Paula, Jim & Charolotte, 2003).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해석학적 입장을 같이 사용하였던 것은 인간의 행위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행위는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구체적이며 연속적인 사건이며, 그 행위 뒤에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버스 탑승과 하차의 긴박한 승부의 순간, 연구 참여자는 안전하고 빠르게 좌석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이러한 의도로 버스 요금을 계산할 때 카드를 이용하거나 거스름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바로 좌석으로 이동하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기사에게 자신의 몸이 불편함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며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좌석을 이용할 때도 가급적 앉아서 가길 원했지만 승객이 많아 앉지 못할 경우에는 좌석에 기대어 가는 안전을 위한 의도적 행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연구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내재 되어있는 세계를 연구한다는 것이다(박성희, 2004). 따라서 보행 가능한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바탕으로 해석학적 입장에서 그 의미를 분석해보는 과정은 다른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며 성공적인 경험과 전략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준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인 이야기도 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버스 이용의 체험과 전략을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속적인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지만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한명의 연구 참여자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뷰 외에 많은 라포형성을 위한 시간과 대화를 나누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듣기를 반복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생활세계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속적인 대화로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버스를 이용한 경험은 있지만 주로 복지시설 차량이나 본인의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대화하면서 본 연구에 참고하였다.

## V. 결 론

본 연구의 참여자를 통해서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 시에 자신감이 독립적인 버스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항상 넘어짐에 대한 경계를 하고 여러 심리적 어려움과 돌발 상황을 극복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병원이나 복지시설과 집 등의 한정된 장소만을 오가는 장애인들에게는 이동 과정 중에 비취지는 사회의 현상이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새장 안의 새의 낮선 도전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 사회 참여의 근간을 제공할 수 있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역 사회 내 이동활동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하며, 정부도 장애인 정책 중 접근성에 관련한 교통시설 이용편의증진법이나 이동약자를 위한 문제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병원과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서 작업치료사들이 기관이나 시설 퇴원 후 지역사회 이동과 교통시설 이용과 관련한 평가와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재활에서 전문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곽영순. (2009). 질적 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과주: 교육과학사.
- 남두희, 임관수. (2007).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을 위한 요구사항과 유즈케이스. 한국ITS학회논문지 6(1), 58-71.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원미사.
- 박혜준, 이승연. (역) (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 신경림. (역) (1997).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동원. (2008).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광주.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1), 91-121.
- 이윤형. (2006). 장애인의 편의시설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방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2(4), 313-338.
- 장재완. (2002).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장애인 이동시설 설치실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전.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09).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최경호, 박인철. (역) (1991). *현상학적 운동*. 서울: 이론과 실천.
- 황호. (2010). *장애인의 공공버스 이용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 Brachtesende, A. (2003). Ready to go? Helping older adults address community mobility. *OT practice*, 8(18), 14-25.
- Deborah, B., Carole, A., Michelle, T. B., & Susan, M. L. (2006). Mobility. In H. M. Pendleton, W. Schultz-krohn, *Pedrettis's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skill* (6th ed., pp. 195-247). Philadelphia, Mosby.
- George, L. K., & Bearon, L. B. (1980).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 New York : Human Science Press.
- Hammersley, M., & Atkinson, P. (1995).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 (2ed.). New York: Routledge.
- Tzonickaki, I., & Kleftaras, G. (2002). Paraplegia from spinal cord Injury: Self-esteem,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OTJR: Occupation, participation and health*, 22(3), 96-103.

## Abstract

### Experiences of Ambulatory People with Disabilities on the Bus -Focus on Experien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Rural Areas by Bus-

Yoo, Doo-Han\*, M.P.H., Park, Hun-kyung\*\*, M.P.H.,  
Jeon, Byoung-Ji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taking a bus, investigate successful strategies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 : In this study, a phenomenological and hermeneutic approach was use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the language, the process. For participants throug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data were collected.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way through technology and to evaluate the results.

**Result** : Ambulator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have confidence in the bus-independent movement in the community possible. And get on and off the bus at the moment of urgent strategies to use in the bus seats were taken. To cope with unexpected situations like that do not put stress was confirmed. In addition, by bus and go sit on the seat to look at the patient's burden was to.

**Conclusion** : Ambulant disabled people's confidence in the bu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dependent movement. Always on the lookout for falling, and many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to overcome unforeseen circumstances to predict and know that public transportation could be.

**Key words** : Ambulatory disabilities, Bus, Mobility, Public Transportation, Qualitative research